

K-UAM 및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방안 모색

-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, 항공안전기술원에서 UAM 및 드론 산업 민관협의체 개최
- K-UAM 상용화 로드맵(‘20.6)의 현실화 및 드론 전주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
- 핵심 기체 및 부품의 기술 자립화, 유연한 규제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 원팀 역할 공유

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(단장: 신상훈, 이하 추진단)은 6월19일(목), 국토부, 산업부, 국방부,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**도심항공교통(이하 UAM*)**, 및 **드론**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,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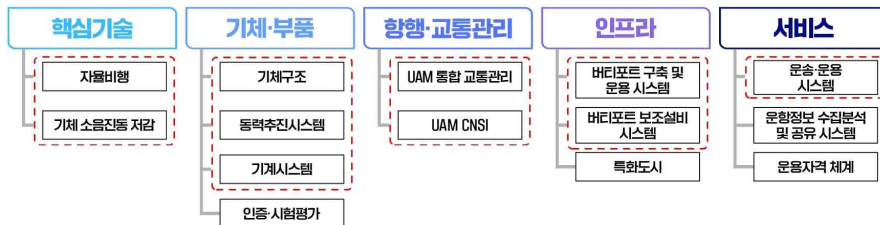
* UAM(Urban Air Mobility)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기체 운항 서비스를 총칭하며, 최근에는 도심 이외에 주변 광역권 교통수단인 AAM(Advanced Air Mobility) 개념으로 확장

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‘게임 체인저’로 2040년에는 \$6,090억 규모(국내 13조원)로 연평균 30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*된다.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, 기체 개발 및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.

* ‘25년(세계 \$109억 국내 \$2.1억), ‘30년(세계 \$615억 국내 \$11.8억), 「국토부, K-UAM 로드맵 ‘20.6」

드론은 농업부터 건설, 물류, 국방까지 **활용 분야**가 빠르게 **다각화**되고 있으며, 특히 **물류 배송**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이다.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, 기업들이 **영세**하고 **기체의 외산 의존도**가 높은 실정이다.

UAM 및 드론산업 밸류체인 구조



※ [금번 민관협의체 참여기업 분야] UAM(KAI(기체), 대한항공(운항), kt(통신), 간성건축(인프라), 브이스페이스(R&D), 버티(실증), 드론유비파이(군집드론), 볼로랜드(부품개발), 메이사(활용기술)

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**상용화**를 목표로 K-UAM 로드맵(‘20.6),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(‘22.9) 등에 따라 **대규모 실증, R&D, 규제 특례** 등 **전방위적 정책**을 추진 중이며, **드론 산업도 「드론 실증도시 및 상용화 지원 사업(‘18~)」**, **「드론산업 얼라이언스(‘25.5~)」**을 계기로 **기술개발부터 실증, 수출까지 전 과정**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특히,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**드론·eVTOL* 행정명령(‘25.6.6)**을 발표하여 **미국 중심 산업 재편, 탈중국 공급망 가속화, 규제 완화** 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UAM 및 드론 산업은 **중대한 전환점**을 맞고 있으며, 이는 국내 산업에도 **새로운 기회와 도전**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eVTOL(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) : 전기동력 분산 수직이착륙기

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**항공안전기술원(KIAST) 시험센터**를 방문하여, UAM 버티포트를 시찰하고 **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 및 비행시험 과정**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.

이어진 간담회에서는 UAM 및 드론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 참석 기업들은 ①**“핵심 기체 및 부품의 기술 자립화”**를 위한 **투자 확대**, ②**“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”**, ③**“전문인력 양성”**, ④**“실증화 지원”** 등을 건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.

신상훈 단장은 “UAM과 드론은 미래를 바꿀 **친환경 기술의 결정체**”임을 강조하며, “정부는 **전후방 산업**을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, 인프라, 제도 정비, 인재양성 등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**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선도 국가**로 도약할 수 있도록 **최선의 노력**을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	책임자	팀 장	장혜정 (044-215-8880)
	미래산업팀	담당자	사무관	권용희 (kyh75@korea.kr)
(협조)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오송천 (044-201-4302)
	도심항공교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서정석 (seoguson@korea.kr)
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김기훈 (044-201-4307)
	첨단항공과	담당자	서기관	박정권 (atcone@korea.kr)
	항공안전기술원	책임자	본부장	임재현 (032-727-5610)
	기획경영본부 기획전략실	담당자	선임연구원	최종완 (imjh@kiastr.or.kr)